교육 권한배분 시범교육지원청 확대

도교육청, 지난해 무주교육지원청 이어 김제·임실·순창교육지원청으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무주교육지원청을 '교육 권한배분 시범교육지원청'으로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운영 대상은 무주교육지원청 소속 유치원 8교, 초등학교 10교, 중학교 6교 등 총 24교다.

지난해에는 ▲업무부담 없는 학교 운영 ▲공모사업 없는 학교 운영 ▲지시·간섭없는 자율적인 학교 등 3無학교를 추진했다면, 올해는 ▲학교업무 최적화 ▲교육과정 자율권 확대 ▲민주적인 학교문화 등 3色학교를 운영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교업무 최적화'를 위해 공문서 간소화·표준화·정보화로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학교 내부문서 간소화 방안을 모색하며 정책·사업 등의 정리를 통해 실질적인 학교 행정업무 경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교육과정 자율권 확대 방안'으로는 교육활동 예산의 자율성, 지역특색 교육과정 개발, 지역교육과정 동아리 지원 등이 추진된다.

또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위해서는 만남과 참여가 있는 학교, 학교자치기구 활성화, 함께 성장하는 교육공동체 등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올해 김제·임실·순창교육지원청을 '교육지원청 역할 톺아보기' 유형으로 추가했다.

이들 교육지원청은 지역 교육 의제 발굴, 지역 교육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및 상시 컨설팅, 학교에서 지원을 요청하는 업무 발굴 등과 관련해 자체 계획을 수립, 지원하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유·초·중등 교육 권한을 실질적으로 학교에 배분해 학교자치에 대한 새로운 모델과 대안을 제시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특히 교육지원청의 학교지원 기능을 강화해 지역별·학교별 특색에 맞는 안정적인 교육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도내 대학 진로·취업교실 운영

전주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전북 지역 청년들의 취업률 제고 및 고용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도내 대학 진로·취업교실'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도내 대학 진로·취업교실은 지역과 대학의 특성을 반영한 우수 프로그램들을 구성해 도내 대학 재학생 및 2년 내 졸업생에게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작년에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미운영 대학인 전북대 등 4개교를 대상으로 ▲진로 및 취업지도 시스템 구축 ▲취업 및 창업 특강 ▲채용설명회 및 취업박람회 ▲채용연계오디션 등을 지원했다. 진로·취업교실에 1,096명의 지역 청년이 참여해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전주대는 우수한 평가 실적을 기반으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거점형 특화 프로그램 운영 대학에 선정됐다. 이에 3월 중 참여 신청을 거쳐 4월 중순부터 본격 지원을 할 예정으로,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전화(063-220-4651)로 문의하면 된다.

전주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이상행 센터장은 "전주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도내 대학과의 협업을 통해 도내 청년층 대상 고용서비스 전달 거점 대학으로서의 위상과 진로·취업 지원 허브 역할을 강화해 청년들의 성공적인 취업 성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공신연 관련 기자회견문 즉각 철회해야"

공신연, 천호성 후보에 촉구 철회 거부시 법정대응 계획

지난 1월 공신연이 수여한 청렴대상 수상자들.

(사)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이하 공신연)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천호성 전북교육감 후보가 지난 23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신연이 수여한 청렴대상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주장한데 대해 전혀 사실무근으로, 천 후보 기자회견문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공신연에 따르면 천호성 후보가 지난 1월 공신연이 수여한 청렴대상과 관련해 교육부문 수상자인 서거석 전북교육감 후보 수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은 공신연의 수상자 선정 과정과 절차를 무시한 것임은 물론, 공신연을 상대로 한 사전 확인 없이 이뤄진 일방적인 주장으로 모두 허위라고 주장했다.

이번 청렴대상 수상자 선정은 전국 각 지역의 직능별, 광역시·도별 추천에 이어 중앙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 등 투명한 절차를 거쳤고, 서거석 후보 역시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국공립대학 청렴도 평가 중에서 전북대학교가 계약분야 청렴도 전국 1위를 차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선정된 것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서거석 후보가 공신연의 의사결정은 물론 공식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고문인데도, 천호성 후보가 서 후보를 공신연의 중앙 임원이라며 청렴대상 수상이 셀프수상이라고 주장한 것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다고 했다.

공신연은 특히 천호성 후보가 기자회견문에서 공신연의 본부가 전주에 있는 것을 거론하며, 공신연이 마치 서거석 후보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호도한 것은 전국 23개 광역시도 본부와, 100개 시군구 지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5,000여명의 회원을 폄훼하고 무시한 것이다고 언급했다.

한편 공신연은 천 후보가 기자회견문을 즉각 철회하고, 공식 사과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 등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전국 5,000여명의 회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천 후보에 대한 불법·부정선거 감시활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안정적 운영 돕는다

도교육청, 지역별 멘토 54명 구성·교육 실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멘토교육에 나섰다고 밝혔다.

2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전주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2022.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멘토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사립유치원 지역별 멘토 및 업무담당자 등 59명을 대상으로 오전과 오후 두 차례로 나눠 진행했다.

멘토단은 일선학교 6~8급 행정직들로 구성, 유치원 회계에 대한 교육을 받은 뒤 사립유치원 1곳씩을 담당하게 된다. 사립유치원 1개 원과 학교회계 담당자 1인이 1:1로 매칭돼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했다.

주요 교육 내용은 예산·지출·수입 등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회계 차이, 사립유치원 감사 지적사항 안내 등이다.

또 그동안 사립유치원 컨설팅 과정에서 발생한 질문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답변을 확인하는 시간도 가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2019년 3월 원아 200명 이상 유치원을 시작으로 현재 도내 모든 사립유치원에 K-에듀파인 시스템이 도입됐다"면서 "앞으로 지속적인 컨설팅과 교육을 통해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시스템 안정적 운영을 위해 K-에듀파인 콜센터, 원격업무지원시스템, 상설교육장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청소년 창의예술복합 공간 조성"

서거석 교육감 예비후보 "문화예술 소외지역 정읍·고창·무주·진안·임실·순창 등에"

서거석 전북교육감 예비후보가 청소년과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창의예술복합 공간을 확대키로 했다. 서 예비후보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화·예술 소외지역인 정읍, 고창, 무주, 진안, 임실, 순창 등 6개 시·군에 청소년 창의예술복합센터를 신설하고, 현 교육문화회관의 기능과 공간을 전면 리모델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창의예술복합센터는 청소년들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 공연, 발표하는 공간으로, 작업실·공연장, 메이커스페이스, 영상·연극·영화·뮤지컬 등 워크샵 공간 등이 들어선다. 또 방과후 예술활동, 교사·학부모 예술교육 연수, 대학·지역 연계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는 복합적 기능을 갖추게 된다.

특히, 전북교육청 직속기관인 전북교육문화회관의 공간을 메타버스와 AR, VR 등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군산, 익산, 남원, 김제, 부안에 운영 중인 교육문화회관과 김제, 장수, 완주 등의 청소년 문화문화공간에 대해서도 청소년 등 수요자 중심의 복합공간으로 만들어 갈 방침이다.

서 예비후보는 "현 교육문화회관과 창의예술복합센터에는 단순한 문화예술 향유를 넘어 다양한 창의적인 활동이 가능한 프로그램과 공간들이 만들어져 지역의 문화예술 거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

"미래형 공립 대안학교 확대"

황호진 교육감 예비후보

황호진 전북교육감 예비후보는 24일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대안학교 정책을 발표했다.

이날 황 예비후보는 "대안학교는 획일적이고 경쟁적인 성적 중심의 공교육에서 벗어나 삶에 대한 근본적 질문과 답을 찾아가는 교육이다"면서, 미래형 공립 대안학교 확대를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치유형' '맞춤형'이 결합된 공립 기숙형 대안학교 설립 ▲전북형 '오디세이학교'인 1년 전환학교 '(가칭)새만금 꿈그린학교' 권역별 설립 운영 ▲일반학교 '대안교실' 교육과정 확대 운영 ▲비인가 대안학교와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지원 강화 등 4가지 대안학교 정책을 약속했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에는 대안교육 특성화 중학교가 2개교, 대안교육 특성화 고등학교 4개교가 있고, 공립은 정읍 '전북동화중학교'와 완주 '고산고등학교' 2개교다.

황 예비후보는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을 위한 '치유형 대안학교'와, 자기 주도적 배움을 통해 스스로 진로는 모색하는 '맞춤형 대안학교'가 결합된 학력인정 공립 대안학교 설립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그는 개방형 교장 공모와 학교운영의 완전 자율 경영을 보장을 약속하고, 필수과목 비중을 일반학교 50% 적용과 무학년제 무학급제 등 미래학교의 새로운 교육모델도 제시했다.

이어 1년 기숙형 전환학교 '(가칭)새만금 꿈그린학교'의 권역별 설립도 약속했다.

'새만금 꿈그린학교'는 중학교를 마친 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에 학적을 둔 상태에서 1년의 배움을 거친 후 원소속학교 2학년으로 진학하는 전환학교다.

황 예비후보는 일반학교 '대안교실'의 확대 운영도 강조했다. 그는 "진로직업 중점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해 직업 능력을 키우고 학교생활의 동기와 열정을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황 예비후보는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는 그냥 만들어지지 않고 전북교육을 바꿔야 우리 아이들의 미래도 바뀐다"며, "유·초·중·고 교육현장을 잘 아는 준비된 교육감이 전북교육을 완전히 새롭게 '리셋'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은성 기자